



“체코는 1919년 조선과 접촉, 독립군에 무기 판 사실있다”

설현태 선임기자의
가로지르기



야로슬라브 올샤 2세 주한 체코대사

보령스가 지난해 하반기 유럽연합(EU) 의장국 역할을 수행한 이래 체코 공화국이 이를 이용해 올해 상반기 동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출무 유럽의 강소국(한국에 비해 작은, 인구 1000만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체코는 EU의 장국을 맡은 것을 계기로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징자는 최근 주한 체코 대사관의 야로슬라브 올샤 2세(Jaroslav Olša, 51) 대사를 만나 체코의 EU의장국으로서 역할, 한국-체코 양국 관계, 대사의 활동 등을 대체 물어보았다. 그는 “체코가 EU 의장국이 된 후 각국의 이해를 조정하는 등 역할이 커져 예전보다 훨씬 바빠졌다”고 말했다.

체코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EU 의장국입니다. 대사는 체코의 이런 역할을 어떻게 평가합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저는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체코가 EU에 가입한다면 EU의 장국이 된다는 것은 뭔가 모호했습니다. 이제 유럽에는 명실공히 국경이 없어졌고 지역은 완전히 개방했습니다. 체코는 유럽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유럽이라는 큰 단위의 통합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역사상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했을 때 체코 층리 등이 EU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오스트리아를 방문하는 등 체코는 EU/회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체코는 2004년 5월 EU 회원국이 됐습니다.”

체코가 EU 의장국이 됨에 따라 대사가 수행하는 한국내 업무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주한 체코 대사로만 활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하게 됩니다. 서울에 있는 EU/한국 회의에 대사관들의 조정 역할을 해야 합니다(한국에는 벨트 3국의 대사관은 없다). 저는 유럽 전선에 위치한 체코 대사로 한국-EU 자유무역협정(FTA) 교섭을 가속화시키고 가능하면 한-FTA를 타결시키고 싶습니다. 전쟁 의장국인 프랑스의 주한 대사 필립 티에프에게서 그 역할을 인수했습니다. 올 하반기엔 의장국 대사의 자리로 주한 스페인 대사에게 넘겨집니다. 저는 올 상반기 중 EU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체코는 과거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고 있음을 의식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기후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려는 EU의 활동에 앞장을 것입니다.”

현재 한국과 체코의 정치·경제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 11월 체코인들과 한국의 현대자동차는 체코의 노조 비ице(Novozice)에서 차량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체코의 슈코다(Skoda) 회사가 자동차를 생산해 왔지만 현대자동차와 함께 체코에서 생산을 시작함으로써 유럽 전역의 시장으로 차량을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체코의 EU 의장국 임기에 맞춰 유럽 시장을 개척한 체코-한국 자동차 협력학생단이 시작됐다는 점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한국과 체코의 경제교류는 1990년 국교수립 때 ‘체코에서 시작됐고 지금까지 증가 중입니다. 양국 무역은 자동차나 전자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성화되고 있으며 양국간 수출과 수입이 대체로 균형상태입니다. 한국과 체코는 점차 서로에게 중요한 나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체코의 외교사나 우리가 잘 모르는 두 나라간의 뜻에 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과 체코는 1990년 공식적 외교관계를 시작해 올해로 20년째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체코는 앞서 1988년 서울 올림픽에 선수단을 보냈습니다. 그 이전에도 한반도와 체코는 약간의 관계를 갖고 있었었습니다. 별로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지만 조선의 1919년 3·1 운동 직후 상하이의 임시정부는 체코군으로부터 상당량의 무기를 사들였습니다. 당시 불리디보스토크에 주둔했던 체코군의 기아디(Gaia) 장군은 상하이 임시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병기를 판매했습니다. 체코인들은 당시 위정 사람들을로부터 온갖 꽃병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세제대전 동안 미국의 우드로 윈슨 대통령은 폴란드 크라인(Croat)을 아시아로 보냈고, 크라인 폭사가 상하이에서 일정 사람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크라인 폭사가 당시 체코 대통령의 친구에서 체코군이 본국으로 귀환하기 전에 푸리를 임명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폐기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불리디보스토크에는 수면정의 체코군이 주둔했습니다.)

“체코가 EU 의장국이 됨에 따라 대사의 저력을 주한 스페인 대사에게 넘겨집니다. 저는 올 상반기 중 EU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체코는 과거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고 있음을 의식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기후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려는 EU의 활동에 앞장을 것입니다.”

현재 한국과 체코의 정치·경제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언정호의
Q-English



정말 바보같은 장난이야

우리들이건 영어이건 음哑파설은 신체 부위, 특히 여성의 민감한 부위를 동식물이나 다른 사물에 비유하는 영증한 화법을 자주 듣습니다. <오클리 파워스>에서도 그런 장난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영화 후반부에서 악당의 인공위성에 적중을 당하고 그 장면이 펠레비전 방송을 한다. 그런데 라이너에 간접한 인공위성의 문자와 찾가슴 표선을 그대로 달았다. 가족과 함께 펠레비전을 보면 어머니가 소리친다.

“What a booby joke!” (정말 바보 같은 장난이구만!) booby (<boobie>) 또는 boob은 에스파니어의 bobo(영자 ‘바보’ 또는 영어사 ‘여러색은’)가 어원으로서 ‘얼간이나 엘드기’ 또는 ‘멍한 것’을 뜻한다. 그래서 “교양이 없고 무식한 부류”를 boobie라고 한다. 이 물론 boobie를 변형시킨 표현이다. 흔히 펠레비전을 ‘바보 살자’라고 하는데, 이것도 stupid cabinet이나 fool’s box가 아니라, 진짜 영어로는 운을 맞춰서 boob tube(부수 투율)이라고 한다.

하지만 예문에서 booby joke라는 말이 웃기는 이유는 boobie의 결말 때문이다. boob이 boobie는 아기들이 쓰는 말로 ‘찌찌’라는 뜻이다. nap(s)나 마찬가지로 물론 이 단어도 우리를 하나로 계신하여 대부분의 경우에 복수형으로 써야 한다. 그리고 boob이라는 말은 어른들이 쓰 때는 ‘웃乘车’(<웃乘车>=웃동)이 정도의 한박한 표현이기 때문에, 앞 아무기는 하더라도 생활영역에서 활용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어쨌든 예문을 보다 살피거나 번역할 때면 이런 말이다. “정말 웃乘车이 웃기기는구만!”

버드 케이블즈 같은 면예언이라면 boobie에 관한 booby joke를 좀 하더라도 무방하겠다. 그는 로니 멘디스와 결혼한 직후에 자녀 카이에 자매하는 심야 프로그램 (The Tonight Show)에 출연해서,

그가 받은 질문에 대해 이런 얘기를 했었다.

“I’m going to marry a blonde with big boobs.” (나이아 포뮬이 큰 금발과 결혼하겠다고 그러더군요.) blonde의 활용사들은 →가 없는 blond(금발의)다. 두 단어의 활용이 같으니까, 활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주로 펠레비전에서 활용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날리 알리지 못한 멘디스의 유명한 가슴크기가 궁금하다면, 언니넷에서 Lori Anderson을 검색해 보기 바란다.

booby joke은 리처드 로저스와 오스카 페어스턴 2세의 고전 퓨지컬 <남태평양>(South Pacific)에서도 선보인다. 해군과 해병을 위한 위원공연에서 간호장교 멋지 케이너가 수영복 차림으로 부르는 노래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Teach her booby, she is my trap.” (나는 그녀를 보면 바보가 되고, 그녀는 나를 잡는 물고기야.)

얼핏 보면 이 노랫말에서는 I am her booby가 ‘나는 그녀의 물고기야’라는 소리에서 웃긴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joke는 영뚱한 뜻에 따로 숨어 있다. 일부분의 booby와 첫부분의 trap을 엮으면 booby trap(위장 복판)이 된다. 전쟁터에서 전사한 시체나 건물 때문에 수류탄 같은 폭발물을 눈에 보이지 않는 낚싯줄로 연결하여 잘못 만드려면 터지도록 만들어놓은 장치를 booby trap(바보의덫)이라고 하며, 그래서 위노랫말은 군인들이 간단히 통장을 하는 영화에 잘 어울리는 맘장난이다. 학교에서 교실 문학 위에 물을 담은 양동이를 끌어들이 영광한 학생이나 선생이 멋도 모르고 문을 열다가 물벼락을 맞게 하는 장난도 booby trap이라고 한다.

booby처럼 한박한 말이나 표현을 고장한 자리에서 bar word(아예 단어)로 바꿔 넣는 블리더기 화법을 euphemism(한박어법)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다.

<온밀한 애석>(Secret Valentine)에서 균친상간의 성희에 능후한 의붓아버지로 몇몇 멋쟁이 라이 페로우의 어머니 노릇을 하는 엘리자베스 대왕에게 텁어놓는다. “My wife was well bred and mother tried except for her fatal靑苔. Excuse me, that’s a private joke in questionable taste.”

첫 문장은 “내 아내는 출신 성분이 고장하고 물이 연약한 편이었는데 그 유명한 유두(乳頭)만큼은 예의장조”라는 뜻이다. mine (mine)는 보다 널리 쓰이는 ripple(꽃파치)과 의미는 같아도 출신 성분만큼은 대단히 고장한 말이다.

그래도 어쨌든 예상의 신체 부위를 높고 맘장난을 했으니 미안 하다면 멋쟁이 사과하는데, 물론 “별로 취향이 바탕적하지 않은 듯한 놀답이어서 활동하긴 하지마요”라는 두 번째 문장도 전혀 진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블리더기 페어스턴은 quantifiable은 ‘직역’을 하면 ‘문제로 삼을 만한’이라는 뜻이다.

<여자의 이별>(Shirley Valentine)의 원작자이기도 한 국 작가-작곡가 윌리 텔렐의 무대극을 영화로 만든 <리타>를 이야기(Educating Rita)는 한박한 진본의 여자 줄리 펄트리스가 교육을 통해 물위를 갖추려고 피나는 노력과 기운을 담은 출판 회극이다. 개인 교수를 받으러 마이클 케인 교수의 연구실에 간 그녀는 백수 펄트리스의 나체 그림을 보고 한 데디하는데, “문제로 삼을 만한” 양여문학의 일환이 당장 드러난다.

“That’s a very nice picture. So erotic. Look at those legs. Do you mind me using words like that?” (서거 아주 멋진 그림이군요, 정말로 색정적예요. 저 짖궂지 좀 보라구요, 나 이런 말은 쓰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말’이란 mumble를 속칭한 test(s)을 의미한다. sput(s)와 여러 모로 등록이다. 하지만 블리더기 쪽지는 test이라 해도 책을 접하지 않고, 이유를 잘 알겠지만, 단수로 써도 된다.

“EU의장국 맡아…상반기 중 韩-EU FTA 타결 시키고파”

“The Czechoslovak Odyssey.” 등 여러 문장을 인용해 “불러다 보스코!” 주한 일본군이 독립운동을 하는 수백명의 조선인들을 끌어모아 무자비하게 고문하고 미치 짐승들에 의해 총격을 하듯이 갑거리에서 그들을 살해했다”고 서술했다. 이 글은 체코군 민들이 일본군의 이런 잔학상을 목격했기 때문에 동통상에서 독립군들에게 무기와 판매를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한국-체코의 외교관계 수립 오래 전에 이런 잡족이 있었던 모양이다.)

대사는 문학 예호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과 체코는 서로 문학 교류가 있습니다.

“제이있는 문학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1947년 한국의 소설 <대하>(大廬)(<길상현 작>)가 체코어로 번역·출간됐습니다. 아마도 유럽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한국의 문학작품일 겁니다. 남한지역에서 출생한 김 작가는 1960년 블라디미르 페트로프(Prokofiev)라는 제목으로 번역됐는데, 번역자는 일본 분학을 전공한 청주 대학(프리하 소재)의 알로이스 펠트로프(Alois Peltrof) 교수입니다. 펠트로프 교수는 일본어(일본문학)에 뛰어난 한국어(한국문학)를 공부한 학자이며, 체코가 공산화되자 이전 한국 문학을 체코에 소개했습니다.” (대사는 2월 17일 체코 작가 두 명(소설가 카렐 차페크, 시인 앤로슬라브 사이에프로트)의 문학 작품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해 체코어로 번역된 한국의 시 ‘보석’(오세영 작)을 낭독했다. 체코인들의 북 넓은 사랑을 받는 작가 카렐 차페크(1869~1938)는 ‘로봇’이라는 신조어(체코어로 로보타)로 로봇(robota)을 만들어

전세계에 유통시킨 인물이며,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사이에프로트(1901~1986)는 체코의 민족시인이다. 두 작가의 작품 전시회는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 클러리 아동(서울 종로 순화동 중앙일보빌딩 1층)에서 2월 17일(7일)~7월 12일(일정으로 연기하고 있다.)

한국 부임 한 무관했던 카렐 차페크, 카렐 차페크, 알로이스 펠트로프와 한국을 비교해 주십시오.

“영국 소설가 찰스 디킨스의 <부 도시>의 얘기(A Tale of Two Cities)가 생각납니다. 시대의 격변을 그린 이 소설작은 한국과 아프리카는 너무나 다릅니다. 카렐 차페크(과거 로디자이)의 경우 작년 한해 물가가 물가는 4000조(千兆)가니 뛰었습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로디자이는 천연자원(다이아몬드, 금)의 부국이었고, 담배 등 농업 부국이었으며, 관공역들이 둘러싸인 곳이었습니다. 로디자이의 경제는 한국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 후 카렐 차페크는 반공의 나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 매우 가난한 주변국이었으나 이제는 성공한 나라가 됐습니다. 오늘날 한국과 카렐 차페크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로디자이의 경제는 한국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 후 카렐 차페크는 반공의 나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 매우 가난한 주변국이었으나 이제는 성공한 나라가 됐습니다. 오늘날 한국과 카렐 차페크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대사는 종이 위에 4000조(千兆)가니를 보여주었다. ‘4000조’는 4 아래에 9이 15개나 되어지는 수치다. 온라인 무료 백과사전 Wikipedia에 의하면 2008년 11월 14일 현재 카렐 차페크의 인구율(인구)은 88.7백만명(88.7백만명)이고, 2008년 11월 14일 현재 카렐 차페크의 인구율(인구)은 88.7백만명(88.7백만명)이다.)